

공격성 조정을 통한 학교의 도덕성 교육방안 탐색

문 영 택*

- I. 서 언
- II. 공격성의 배경을 찾아
- III. 공격성 조정을 위한 학교교육의 방향
- IV. 결 언

I. 서 언

가정은 학생의 최고의 양육처이다. 그러나 오늘의 가정은 교육적 권위를 잃은 듯 하며, 사회는 공격성의 사후 처리적이며 결과에 집착하는 경향이다. 중요한 것은 과정과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하는 일일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학교교육마저 방치한다면 위기의식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논자는 현재의 우리사회를 다음의 가설로 진단하고 있다. “가정은 공격성을 잉태시켰고, 사회는 이를 조장하고, 학교는 그 치유 교육을 방치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조잡한 언어생활·약물 오남용의 확산·범죄의 급증·과소비 풍조·엽기적 부모살해...

연쇄적 청소년의 병리현상에서 우리는 가치관의 혼란·도덕성의 타락·공격성의 급증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범죄 행위가 날로 폭력화·기능화·조직화되고 있는 것은 사회 전반의 도덕적인 기반과 기준이 무너지고, 근면·성실 등의 덕목 대신에, 한탕주의·편의주의 심리가 이 시대의 행동윤리처럼 바뀌어 범죄 동기로 자리잡고 있음을 뜻한다. 김인희 교수는 “우리사회는 더 이상 교실도 가정도 아니다. 위선적 연기로 무장된 다양하고 추악한 개인적·집단적 이기주의들이 대결하는 극장 무대일 뿐이다. 그들이 벌이는 공통된 연기는 이기주의 정체를 감추는 위선¹⁾이라고 혹평하기로 했다. 더욱이 오늘의 학교 교육도 공존의 규범이나 가치보다는 지식 경쟁을 통한 이기적 가치의 내면화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덕성의 타락에서 기인한 공격성은 질병 이상의 징후를 내포한다. 사회와 국가 차원의 문치를 야기할 잠재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위대한 로마를 건설한 것은 군이 아닌 전전한 가족이듯, 로마가 멸망한 것은 로마의 가족제도가 와해되고, 성생활의 문란과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졌기 때

* 서귀포여자고등학교 교사.

1) 김인희(연세대 교육학), 중앙일보 제7309호(89. 8. 11).

문²⁾”이라고 한 Spengler의 문명사적 집단이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는 우리 사회에 주는 교훈은 〈반 사회적 공격성〉에 대한 국가적인 치유책을 찾아, 세워야 할 절박한 시점임을 인식하는데 있다할 것이다.

우리는 인간의 본성에서 덕을 끌어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현대의 윤리학은 응용 심리학이 되어야 한다는 Erick Fromm의 주장³⁾에 논자는 주목하고자 한다. 성숙하고 융화된 성격 구조가 덕의 원천이라면, 악덕은 결국 자아에 대한 무관심과 자해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심리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학습자들이 일찍 심리학에 접근할 수 있는 교육적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회를 앞당기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고는 공격성의 〈천 사회적 행위로의 조정〉에 의한 도덕성 회복의 가능성 모색에 연구의 중점을 두고자 한다.

II. 공격성의 배경을 찾아

1. 공격성의 정의와 발달 이론

사회의 모든 악의 근원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원천적인 공격성 때문이다. 심리학자들에게 통용되는 공격성의 정의는, 심리학 문헌에 250여개나 기록될 만큼 아직 정립되지 못한 듯하다. Hartup은 “공격성은 타인이나 사물에 손상을 입힐 의도적·신체적·언어적인 반응⁴⁾”으로, 박덕규는 가정

·학교·사회생활 등에서 개인에게 공포심을 주거나 위축감을 갖게 하는 의식 또는 무의식적 행위⁵⁾로 정의하고 있다. 여러 이론들을 정리하여 논자의 정의를 내리면, 공격성이란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신체적·언어적·물질적 또는 사고 형성에 유해한 자극을 가하는 의식적·무의식적 행위이다. 만약 「학동의 사회화 주관자⁶⁾」가 그들의 잘못된 언행을 교정하기 위해 긍정적 반응을 희망하는 처벌의 경우에도, 공포심 또는 적개심을 갖게 한다면 이러한 행위도 공격성의 범주에 속할 것이다. 왜냐하면, 타인에 대한 파괴성은 어떤 의미에선 자살에 대한 충동과도 비교할 수 있는 병적 현상이며, 생명에 대한 존중은 정신적 건강의 한 조건이기 때문이다.⁷⁾

두뇌학자들은 아직 인간의 두뇌중 어느 부분이 공격성을 조정하는지에 대한 확증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모든 공격이 충동·반사 기관의 작용 등으로 발생한다는 데에는 동감하고 있다. 공격성 발달 이론은 Freud와 Lorenz 등이 주장하는 본능 이론, Dollard를 비롯한 Yale학파의 욕구 좌절-공격성 이론, Bandura가 중심인 사회학습 이론, 염색체와 사고 그리고 뇌와 호르몬 분비 등에 이상이 있을 때 발생한다는 생물학적 이론 등이 있다. 인간은 공격성의 근원이 되는 신경·생리적 기관을 태어나면서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공격적 존재이다. 공격 행위는 욕구·좌절·교육·시행착오·관찰 등으로 인해 나타나며, 동시에 대뇌의 조종을 받는다. 공격 상황은 사회적 경험

2) Spengler (독일의 문명사가), 「서구의 몰락」

3) Erick Promm, 「man for himself」, 송낙현 역, 서울 : 문학과출판사, 1986, 40쪽

4) 송창윤, 「부모의 양육태도와 공격성과의 관계」, 1987, 10쪽에서 재인용

5) 박덕규, 「청소년의 성격형성과 공격성」서어, 서울 : 배영사 신서, 1983, 11쪽

6) 본 고에서의 학동은 아동기와 청년기의 대상을 지칭하는 넓은 의미로 쓰이며, 학동의 사회화 주관자는 학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모와 교사 등을 의미하며 이하 주관자로 약함

7) Erick Fromm, 「앞의 글」, 259쪽

에 좌우된다. 이런 관점에서 “공격성은 항상 좌절의 결과”라는 욕구 좌절-공격성 이론과, “사회화 과정에서 모방과 강화에 의해 공격성은 학습된다”는 사회 학습 이론 사이에 관련성이 깊은 듯하다. 즉 공격성이 일차적 반응으로 나타난 후, 학습과정을 통해 성격 형성에 고착되며, 형태 역시 발전하는 것이라 하겠다.

2. 공격성 형성 과정

심리학의 발달은 의학과 교육학의 획기적인 성과를 이룩했으나, 의학에서의 인술이 사회 문제화 되듯, 지식의 발달과는 달리 지성의 고갈 현상을 초래하였다. 수술실에서 발휘되는 의술처럼 교육학도 대개 연구실의 학문연구 대상으로 머물러 있어, 지성훈련을 위한 교육이 발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관료체제·산업화·도시화 등의 급격한 사회변동 과정에서 인간은 물질에 의해 지배되고 있기 때문이다. Erick Fromm이 “이 세상은 온통 사업하는 곳이다. 인간 관계의 세계는 시장과 흡사하다.”⁸⁾라고 지적했듯이, 인간은 목적에서 수단으로, 인간성에서 物性과 시장성 교환가치로 전락되었다. 이러한 무력감과 사회적 고립은 인간 소외 현상의 동기로 작용하여 문제성을 띠게 된다. 인간의 자기 파괴적 행동⁹⁾인 소외 현상은, 결국 학동들의 심리에 불안 의식과 정서적 불안정을 초래해, 자신감의 결여·타인지향성·자기비하에 빠져 증오와 파괴충동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흔히 학동들은 변화무쌍한 작은 도전자라고 부른다. 정체 의식의 위기·가정 또는 학교에서의 편

애·사회에서의 상대적 빈곤감 등에서 싹트는 그들의 소외감정은, 자제력의 학습을 배울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즉각적인 여러 형태의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만약 소외감정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그들은 의기소침·비행·부적응·불량화 등으로 공격성의 출로를 찾으려 할 것이다. 산업사회의 문제가 학교사회에서도 나타나 교육지체현상은 문화지체현상으로 물질지향적 현실중심의 가치관은 학교교육에도 기능훈련장의 역할을 조성해, 공장적 교육¹⁰⁾이 강조되는 현실을 낳았다.

우리는 지금 교육 폭발 시대를 맞고 있다. 그 결과 경제발전은 가능해졌으나 교육환경은 사회로부터 소외받아온 결과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학생을 교육한다.”라는 자조적인 유행어를 낳을 만큼 학교 교육이, 지나치게 방법과 수단 위주로 운영되고, 과거에 집착하는 보수적 성향이란 비판을 감수하고 있으며, 이념과 목적에는 소홀하게 되어 불확실성의 〈위기의 교육〉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과거 지향적이고 보수적 가치관을 여과없이 다음 세대에게 전수했던 전통사회에 반해, 현대사회는 창의성·개방·발전 등에 궁극적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오늘의 기성 세대는 젊은 세대에 대한 태도와 입장이 불명확하고 양면성을 띠는 현상이다. 전통사회에서의 이탈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요즈음, 가치관의 혼란으로 어른들의 각기 다른 양육·교육태도를 낳은 결과 기성세대의 권위는 약화된 반면, 학동들은 제량화¹¹⁾와 외국 문명 동일시에서 다른 의미의 권위를 찾는 심리를 낳았는데, 이규태는 외국 선망 체질이 한국인 기질

8) 「위의 글」, 203쪽

9) 최정웅, 「교육사회학」, 서울: 형설출판사, 1994, 198쪽

10) 「위의 글, 같은쪽」

의 심층을 이루고 있다고 분석하였다.¹²⁾

전통문화와의 단절, 외래 지향적 성향 등은 학동들의 상대적 빈곤감을 야기하여 정체감의 위기를 낳는다. 소외를 느낀 학동들은, Anomie 상황 즉 무규범적이고 이기적 상황¹³⁾을 만나, 사회로부터 도피하고픈 충동을 맛보기도 하며, 길거리의 문화 혹은 나룻배의 문화라고도 하는 대중문화 속에서 자신의 도피처를 찾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대중은 원자화된, 주체성을 상실한 평균인¹⁴⁾을 뜻한다. 대중문화는 형식에 담아 대량생산되는 문화이다. 대중 속에서 생활하는 현대인은 비개성적이고 무력하며 비합리적인 성격을 띠며, 특히 TV와 영화 등의 인물을 닮으려는 〈연예인 동일시〉 현상을 즐기려는 학동들을 부화뇌동하고, 무비판적이며 쾌락을 쫓는 경향이 강한 편이다.

Freud에 의하면, 동일시란 외부의 대상이 지닌 성질을 자신의 인성 속에 흡수하는 성향이다. 종류로는 자기 도취적 동일시·공격자와의 동일시·목표 지향적 동일시·대상상실 동일시 등으로 분류했다.¹⁵⁾ 학동들은 그들의 욕구불만·무능·불안 등 긴장에서의 해소를 위해서 동일시 대상을 찾는데, 학동들의 동일시가 바람직하게 이루어지도록 주관자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시기가 바로 이때라고 Freud는 강조한다. 이를테면 〈연예인 동일시〉와는 달리 〈고전 동일시〉는 동일시 대상을 역사·문화 등의 인물에서 찾게 하는 교육적 노력이다. 주관자의 영향 또는 자율독서 등을 통해 얻

어지는 〈고전 동일시〉는, 본능에 대한 구속력을 갖는 자아에너지를 획득케 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친다. 자아는 의식의 문지기로서, 공격성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¹⁶⁾

개인은 타인을 모방하고 응용한다. 개인의 의식이 타인으로부터 분화되는 과정을 개성화라 하며, 이것은 인간이 타고난 자율적 과정이며, 복잡한 상징체계에 의해 더 정교하고 세련된 배출구를 찾는다. 개성화의 시작은 의식의 시작이고, 의식이 증가하면 개성화도 증가한다. 곧 personality는 의식화됨으로써 개성화를 이룩할 수 있으며, 전전한 개성화를 형성하기 위해 적절한 체험과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Jung에 의하면, 정신 에너지는 개인의 경험에서 생기며, 음식물이 몸에 의해 소화되어 생물학적 또는 생명 에너지로 변화듯 경험은 정신에 의해 소화되어 정신에너지로 변화하기 때문이다.¹⁷⁾ 외적인 경험은 내적 정신계에 의해 원활하게 적용될 때, 비로소 학동들은 이상적인 개성화를 가꾸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3. 청년기의 심리 특징

많은 심리학자들이 특징있는 발달 단계와 심리 변화를 제시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중·고등학교생인 청년기의 심리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Montessori는 아기가 우는 이유로 불편함과 배고픔 이외에 지루함을 발견했다. 생후 2~3

11) 서울대 교육연구소에서 펴낸(1994) 교육학용어대사전에 의하면, 계량화란 어떤 사실이나 성질을 숫자화하려는 경향이다. 한편 으론, 물질문명과 상업성에 대한 비평으로서 숫자에 의해 사람을 저울질하려는 문학 또는 철학적 의미를 띠는 경향을 뜻하기도 한다.

12) 이규태, 「한국인의 의식구조」, 서울 : 신원출판사, 1983, 24쪽

13) 최정웅, 「앞의 글」, 198쪽

14) 「위의 글」, 206쪽~207쪽

15) Calvin, S. Hall, 「Freud 심리학 입문」, 최혜란 역, 서울 : 학일출판사, 1988, 94쪽

16) Freud, 「앞의 글, 같은 쪽」

17) Jung외, 「융 심리학 해설」, 설영환 역, 서울 : 선영사, 1986, 111쪽

개월이 지나면 아기는 자극을 구하며, 울음으로 자극이 없음을 표시한다.¹⁸⁾ 또한 아동기의 공격성은 자기의 일을 성취하지 못함을 시사해 준다. 유아기를 거쳐 5~6세에서 12세 사이, 아동의 성적 충동과 공격성은 약화되어 활동하는데, Freud는 이 시기를 잠복기라 칭한다. 잠복기를 벗어나면서 성적 충동과 공격성이 되살아나 사춘기의 전형적인 스트레스와 긴장을 일으킨다. Rousseau는 청년기를 제2의 탄생이라 했고, Jung도 정신적 탄생이라 불렀다. 생리적 변화가 정신적 혁명을 거느리는 청년기는 지적·사회적·정서적·신체적으로 성숙이 왕성한 자기발견의 시기이기도 하다. 강한 우울감에 도취되기도 하고 열등감·좌절감·실의 등으로 방황하고 고뇌하기도 한다. 이러한 청년기의 특성때문에 이 시기를 질풍노도, 경계인 또는 심리적 이유기라고도 한다.¹⁹⁾

청년기는 자아 정체감의 위기의 시기이며 반항의 시기이다. 발달론자인 Erikson의 삶의 8단계 이론에 의하면, 사춘기 내지 청년기의 특징은 정체감과 역할 혼미로 규정한다. 자기의 가치나 신념에 맞지 않는 전통적 관습과 권위 등에 정면으로 반항하며, 이에 따른 내면적 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때 정체감의 혼미나 부정적 자아에 빠지는 경향이 강하다.²⁰⁾ 이렇듯 청년기가 요란스러운 것은 외계와 신체적 근원에서 다량의 에너지가 정신으로 모여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심리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양육·교육 태도는 학동으로 하여금 소외·좌절·패배감 등을 맛보게 해 충동적 공격

행위로의 통로를 열어줄 것이다. 그러나 정체성을 찾는 교육적 기회를 갖는다면 청년문화는 주류문화를 더욱 발전시키고, 순수를 지향하며, 이상주의 문화의 창조 가능성을 갖고 있음도 특징이다. 공격성이 비록 이헷스런 것이긴 하나, Lorenz에 의하면 인간의 최고의 목표달성을 위해 없어서는 안될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다.²¹⁾

III. 공격성 조절을 위한 학교교육의 방향

1. 교사와 공격성 조절

1) 교사의 역할

학교는 교육을 본질로 하는 사회집단이며 심리 집단이다.²²⁾ 특히 학교는 이상주의적·가치지향적·자유주의적 문화를 갖는다. 학교를 이루는 하위 집단인 학급은 학생들의 실질적 학습지도와 생활 지도를 위한 기초적 자치집단이며, 교사와 학생 상호관계의 직접적인 만남의 장이다. 따라서 공동의 식 *we-feeling*과 소속감이 강한 집단이다. 그러나 학급은 담임의 성격과 지도에 의해 교육적 성향이 달리 형성될 수도 있다. K. Lewin 등이 연구한 학생 성향 반응에 따른 교사 유형을 살펴보자.²³⁾

위의 실험은 교사에 의해 교육의 성패가 달려 있음을 보여 준다. 교사는 학생의 자기발견의 조정자이며 적당한 환경 구성자·관리자²⁴⁾라는 Montessori의 지적처럼, 교사는 지식과 기능도 갖춰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원숙한 덕성 즉 인

18) 市丸成人, 「Montessori 교육학 입문」, 이정규 역, 서울: 현대교육사, 1986, 41쪽

19) 최정웅, 「교육사회학」, 서울: 형설출판사, 1984, 56쪽

20) William·C·Crain, 「Theories of development」, 서봉정 역, 261쪽에서 재인용

21) Konrad Lorenz, 「On Agression」, 송준만 역, 서울: 이화문고 42, 1986, 308쪽

22) 최정웅, 「앞의 글」, 85쪽

23) 「위의 글」, 197쪽에서 재인용

24) Montessori, 「앞의 글」, 172쪽

교사 유형	학 동 의 성 향
권위(지배)형	복종·반항적·독창적 한정, 지도자 있을 때의 작업량 98%, 지도자 없을 때 작업량 29%, 작업이 끝나면 자기 작업을 파괴하는 경향
방임(무관심)형	지도자의 유무에 작업량은 관계없음, 무질서·혼란 상태, 욕구불만, 성공적인 작품이 없는 경향
민주(자율)형	자발적, 지도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협력함, 만족도와 생산성이 높음, 공격성이 조정되고 공동의식이 향상됨

격과 도덕성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또한 교사는 국민과 국가를 대표해서 사회의 요구와 역사의 흐름과 우주의 본질을 학동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담당할 예언자적 선구자들이다. 그러기에 물질을 다루는 기능인이나 상인, 육체에 관여하는 의사보다도 인간 정신을 고양하는 교사는 국가와 사회는 우대하고 존경해야 한다. 교사는 학동을 항상 각성시키고 그들의 영혼을 감동시켜야 하며, 천부적인 직업관과 건전한 비판 정신을 가져야 하며, 사랑의 실천가여야 한다. 또한 교직에서의 경험뿐만 아니라 역사·문학·예술·자연과학 등 전반적인 지식의 확장을 통해 적절한 것을 배우고 응용해야 하며 특히, 교사는 물건을 움직이기 위해 역학을 이용하듯이 학동의 혼을 움직이기 위해 심리학을 이용해야 한다.²⁵⁾

2) 모델 학습과 체벌

모든 공격성은 발전 실현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주관자들은 그들의 인격형성에 교육적인 큰 힘을 갖기 때문에 좋은 모델만 제시한다면 공격

성은 보다 바람직한 출구를 찾을 것이다. 반대로 학동이 주관자를 증오한다면 반사회적 공격성을 양산할 것이다. 이를 박덕규는 교육의 부메랑 효과²⁶⁾라 칭한다. 학교에서의 부메랑 효과는 잠재학습의 풍토에 의존하는데, Bloom은 표면적·잠재적 교육과정이 조화롭게 상보적인 관계에 있을 때, 학동 행동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²⁷⁾ 인지적 수준이 아닌 내면화 과정을 통해 학습되는 정의적 교육은 개인의 행동을 규제하는 힘이 넓고 많은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Krathwohl에 의하면, 정의적 학습은 감수(感受)의 과정-반응-가치화-조직화-성격화의 단계를 밟아 내면화된다.²⁸⁾ 이렇게 형성된 정의적 특성은 충격적인 경험이 주어지지 않은 한 자연적인 정서나 감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강하다.

정의적 교육은 특히 잠재학습과정에 크게 의존한다. Kohlberg에 따르면, 도덕교육은 잠재적 교육과정으로, 학동이 경험한 총체적인 숨어있는 교육과정이다.²⁹⁾ 표면적 교육과정이 주로 지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 반면, 교육 현장의 문화풍토인 잠

25) 최정용, 「앞의 글」, 190쪽

26) 박덕규, 「앞의 글」, 71쪽

27) 김여옥, 「심성개발 프로그램」. 서울: 배영사 신서, 1983. 35쪽에서 재인용

28) 「위의 글」, 32쪽에서 재인용

29) 「앞의 글」, 35쪽에서 재인용

재적 교육과정은 非知的·정의적 영역과 관련이 깊다. 따라서 학생들의 흥미·태도·가치관·신념과 같은 정의적 발달을 중시하는 교육이 도덕성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Skinner에 의하면, 학생의 사회화를 위해 주관자는 적극적인 강화만을 쓰고 체벌은 사용하지 않은 것이 효과적이다.³⁰⁾ 강화 원리의 신중한 응용이 학생을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강화의 방법이 목적인 결과에 이르지 못할 경우, 학생의 잘못에 벌을 주어 제지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이때 유념해야 할 것은 체벌이 적절치 못하면 학생은 더욱 〈반 사회적 공격성〉을 강화시킨다는 사실이다.

행동수정을 위한 효과적 방법을 모색해보자. 첫째, 학생을 벌주는 것 대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소거³¹⁾와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정적 강화를 결합시킨다. 둘째, 반응에 대해 즉시 강화할 때 반응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상적인 체벌의 시기는 잘못을 저지른 직후나 저지르려는 때를 활용한다. 이때 체벌에 대한 원한 또는 공포를 갖지 않도록 내면화에 적합한 분위기 속에서 집행해야 효과적이다. 셋째, 연쇄적 공격성 발생을 예방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다른 학생들 면전에서 체벌은 교육적 상황이 고려되어도 잠재적 공격성이 이입되어 비슷한 상황을 만날 경우, 연쇄적 공격성 확산을 조장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체벌 역시 공격성 예방을 위한 학습 전이 효과가 있으나, 보다 중요한 것은 잘못된 행동에 대한 행동 교정을 위해, 반성하게 하는 교육적

환경(상담활동·함께 일하기·운동하기·공격성을 이용하는 운동 내지 작업 등)을 조성하여 완전 해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3) 어휘력과 예절

어휘력은 언어를 논리적·윤리적으로 적절하게 표현하며, 낱말이 갖는 의미를 잘 파악하는 능력이다. 같은 또래 집단에서도 자아발달의 원동력인 어휘력이 높은 아이와 낮은 아이로 나뉘는 것은 환경적인 원인에 기인한다.³²⁾ 학생의 질문에 대한 주관자의 무성의한 대답은 사물에 대한 개념의 혼동과 주관자에 대한 불신이 싹트는 계기가 된다. 그 결과 그들간의 대화단절은 어휘력을 결핍시킬 뿐만 아니라 이해력의 퇴행을 일으킬 것이다.

H·R(홀름) 활성화·토론학습·상담활동 등은 어휘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그들의 폭넓은 자아형성을 도모하여 민주적 사고의 훈련장이 될 것이다. 교실에서의 민주연습은 곧 민주시민으로 자라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Montessori는, 어휘력 향상은 지성의 발달을 촉진하며, 여러 기관과 기능중 감각운동, 특히 손 운동과 일상생활에서의 언어와 문화가 지성의 고양에 큰 영향을 끼친다³³⁾고 하였다. 언어는 사회생활 중 정보와 사고의 도구이며, 개인의 경험을 정리·기업·축적하는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예절을 비롯한 자기통제를 통한 경계성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또한 공격성 조정에 의한 자아형성은 예절의 생활화로 답할 것이다.

30) William. C. Crain, 349쪽에서 재인용

31) 서울대학교연구소편 교육학용어사전에 의하면, 소거란 조건반사에서 자극을 주지 않고 실험을 되풀이 할 때 반사가 차차 없어지는 현상임

32) 주건성, 「인성분석 입문(알고 계십니까?)」, 서울: 노혜출판사, 1988, 76쪽.

33) Montessori, 「앞의 글」, 120쪽

예절은 문화적 의식화에 의해 엄격히 정선된 결정체이다.³⁴⁾ 정신분석이나 사회학습 이론에 의하면, 어려서부터 도덕적 규칙이 개인의 신념 체계로 내재화되어 선악을 판단한다. 곧 도덕적인 규칙인 양심이 생성될 것이다. 양심은 단순한 인지적 판단만이 아니라 강한 정서적 요소도 지니고 있어 이 규칙을 어길 때 개인은 죄의식을 갖게 되며, 이와 달리 정서적 안정감을 획득할 때 행동은 자기 통제력 *self-control*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4) 웃음과 유머

웃음은 우리에게 지력·자제력·통찰력을, 유머는 거짓에서 진실을 가려낼 수 있는 힘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히 진화된 것처럼 보이며, 또한 웃음은 공격성에서 파생된 호전적 열광과 비슷하다.³⁵⁾ 그래서 웃음은 참여자들의 강한 동료 감정을 일으키며, 동시에 외부인에 대항하는 공동의 공격적 성향을 조장한다. 하지만 웃음은 열광보다는 정적이며 인간적이다. 열광이 자기 통제에 대한 합리적 사고를 추방시키지만, 웃음은 결코 우리를 무비판적으로 만들지 않는다. 그러나 웃음이 호전적 열광과 만나 통제를 받으면 비웃기·조롱·억지웃음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Lorenz에 의하면, 웃음과 유머는 예민한 식별력을 갖춘 최선의 거짓말 탐지기이다.³⁶⁾ 이러한 힘을 가진 웃음과 유머를 배우기 위해, 주관자는 사랑과 우정이 깃들은 교육과, 음악과 미술 등 예술성을 키워주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웃음과 유머는 긴장에서 해

방될 때에 가질 수 있는 무한정하고 신선한 기운이며, 타인을 정직하게 대하는 능력이며, 또한 개인과 사회에 도덕적 책임감을 일깨워 주는 통제되지 않은 본능적 운동 양식인 아주 희귀한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본주의 교육만이 호전적이고 유혹적인 모든 자극 상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순수하고 실제적인 가치를 지니게 되어, 개인이나 집단이 갖고 있는 공격성을 윤택하게 조정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³⁷⁾

2. 체육교육과 공격성 조정

1) 학교 체육의 허와 실

Jung은 “성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전환되어 무용이 되고, 공격 에너지가 다른 곳으로 돌려져 경기가 된다³⁸⁾”고 주장한다. 인간이 갖고 있는 고도로 의식화된 공격성의 대응물중 하나가 스포츠이다. 경기는 건강과 승리욕 이전에, 인간이 갖고 있는 공격적 충동을 정화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공격성 대응물이다. 현대인은 아직도 불충분한 공격성 소모 때문에 많은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Lorenz에 의하면, 공격성 조정은 간접적으로 어떤 대상을 파괴하거나 공격행위를 자행하는 것인데, 운동은 가장 좋은 공격성의 해소제가 된다.³⁹⁾

운동은 개인·단체·국가와의 관계를 증진시키며, 구성원이 응집력을 갖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운동의 가치는 개인주의적 행동 양식으로, 공격성의 발산 외에 신사도 정신과 공정성의 욕구 터득에 있다. 아울러 집단적·호전적 열광이라는 진요

34) Lorenz, 「앞의 글」, 97쪽

35) 「위의 글」, 325쪽

36) 「위의 글」, 327쪽

37) Erick Fromm, 「앞의 글」, 20쪽

38) Jung, 「앞의 글」, 173쪽

39) Lorenz, 「앞의 글」, 307쪽

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형태의 공격성에 대한 긴장한 안정장치, 즉 의식적이며 책임감있는 자기통제를 배우는데 그 교육적 가치가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호전적 열광의 대상을 선택함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무가치하고 해로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음도 경계해야 한다. 실제로 우리 주변의 긴박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교간 경기에 대한 구조적 갈등의 원인에 대해 심각한 반성이 필요하다. Hitler는 게르만민족의 우수성을 조작하고 전쟁준비를 위해, 호전적 열광을 통한 전체국가로 이끄는 과정에서 안보체육을 이용했고, 적지 않은 나라에서 우민화정책의 일환으로 3S (Sports·Sex·Screen)을 이용했음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오늘날 직업화·상품화·다양화로 열광자(팬)들을 양산한 스포츠는, 문화적으로 발달된 규칙중 가장 엄선된 비적대적인 싸움의 형태임에도 학교·사회의 체육은 소수 정예를 위한 엘리트 체육으로서, 더욱이 학연·지연 등으로 조장된 분파의식으로 긴장에서 자유로워지려는 바램이 무산되고, 오히려 승부욕 때문에 더 큰 긴장감을 잉태시켜 공격성을 증가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2) 校技개발 및 체육단위 조정

승부를 초월하여 경기 그 자체를 즐기고, 긴장감을 해소하는 자세가 체육 본래의 취지이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스포츠·경기·여가선용·놀이·운동 등을 포함하는 체육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주관자들은 학생들의 체육에 대한 의식교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올

림픽이 Elite 체육을 낳았다면, 진정한 의미의 신체 활동을 발달케하는 Sport for all⁴⁰⁾ 운동은 올바른 학교체육과 사회체육을 조성하는 공토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지적으로는 타학교와의 경기에서 기계적이고 긴장된 응원전 대신에, 경기 자체를 즐기는 응원이 되도록 응원 풍토를 조성해야 하며, 전 학생이 즐기고 배우는 축구·수영·배드민턴 같은 교기 개발, 또는 실질적인 C·A의 일환으로 비독반·동산반 운영 등이 효과적인 것이다. 거시(舉示)적으로, 교과과정에서의 체육 이후 단위를 높여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통한 공격성의 〈친 사회적 행위〉로의 전환을 모색함이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풍토가 될 것이다.

3. 심리학 교육과 공격성 조정

1) 심리학 교육의 필요성

학동은 어려서부터 감각을 통해 선악의 판단을 배우기 시작한다. 어른들은 이러한 발달 심리를 무시하여 그들에게 윤리적 규범을 부여할 것이다. 이러한 체계는 지식과 이성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닌, 권위의 산물이다. 자율과 이성에 근거한 인도주의적 윤리학에선, 선악을 판별하기위해 우선 인간의 본성을 이해해야 한다. Fromm에 의하면, 자기 긍정의 가치를 신뢰하려면, 자기 자신을 인식해야 함과 동시에, 생산 지향적인 자기 본성의 능력도 알아야 한다. 또한 도덕률은 절대적 권위를 부정한다. 김성태에 의하면, 도덕성과 가치관은 지속적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⁴¹⁾ 사회의 진화와 인지의 발달로, 자아의 성장은 개인을 보다 객관적이고 상대적인 가치관을 갖도록 요구할 것이

40)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사회운동화의 명칭, 미국의 Physical Fitness, 서독의 Gold Plan과 Trimming, 캐나다의 Participation Campaign 등이 있음.

41) 김성태, 「발달 심리학」, 서울: 법문사, 1988, 307-8쪽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윤리교육이 권위주의적이 아닌 인도주의적이 되기위해선 규범적이고 획일적인 윤리교육이 아닌, 학동 발달에 기초를 둔 지식과 정성의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Rousseau의 말이다. “당신이 학동을 직접 박해함으로써 그 스스로 아무것도 모르게 하지 말고, 스스로 배우게 함으로써 알게 하라… 만약 당신이 이성 대신 권위를 사용한다면 그는 추리하기를 그만 둘 것이다.”⁴²⁾

Freud는 비합리적 본성의 힘이 강한 인간집단을 높이 평가하지 않았다.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이성이 인도하는 생활을 영위할 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실보다는 환상과 물질을 쫓는 생활을 더 즐기 때문이다. 사회 비평가이기도한 그는, 새로운 세대는 모두 비합리성이 반영된 사회에서 태어나는 까닭에 타락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하지만 부모와 교사들이 심리학 교육을 받고 지식과 학동의 양육과 교육에 심리학 원리를 이용한다면, 이러한 상황은 개선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⁴³⁾

자신을 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이를 교육하는 것은 더 중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문명이 되려는 부단한 학습에 의해 우리는 공격적 충동을 자제할 수 있는 진화의 위대한 건설자⁴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에선 극히 제한된 학동들만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으며, 그들중 일부가 지원에 의해 심리학을 공부한다. 그 밖의 더 많은 학동들은 정체성을 확인할 교육적 기회도 갖지 못한 채 사회로 진출하고 있음이 현실이다.

교사에게는 인간 정신의 기본적 진리를 교육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왜냐하면 인간정신 즉, personality는 개성의 최고 실현 형태이기 때문이다. Jung에 의하면, personality는 인생을 사는 고도의 용기이며, 개성을 구성하는 절대적 긍정 요소이다. 또한 보편적인 생활 조건에 대한 가장 훌륭한 적응이며, 가능한 범위내에서의 자기 절정에 대한 최대의 자유이다. personality의 완성은 도달할 수 없는 이상이다. 그러나 과정이지 결코 목표는 아니다.⁴⁵⁾ 자기 인성을 갖추면 그는 무의식적 내면의 소리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인격을 갖춘 사람만이 집단 속에서 자기의 위치를 깨닫고 사회를 창조하는 힘을 지닌다. 그러므로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의미로서의 자기 인식은 도덕성의 최고 실현이며, 자기 실현은 곧 도덕성의 생활화를 의미한다.

2) 심리학 교육의 시기

청소년들은 자아정체성을 찾기 위해 방황하고 고민한다. 욕구·좌절·불안·빈곤의식 등에서 기인하는 정체성의 위기는 청년문화가 비행과 범죄의 반문화로 발전될 위험성을 내포한다. 교육이 기여해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으며, 이는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는 교육의 역할이며 소명일 것이다. 중·고등학교에서의 체계적인 심리학 교육⁴⁶⁾은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가설에 이르게 된 논자는, 여러 학자들의 이론과 현실의 교육풍토를 고려하여 조기 심리학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었다. 註⁴⁷⁾ 통계에서

42) Willam, C. Crain, 「앞의 글」, 32쪽에서 재인용

43) Freud, 「앞의 글」, 31쪽

44) Lorenz, 「앞의 글」, 331쪽

45) Jung, 「앞의 글」, 263쪽~264쪽

46) 극히 일부의 고등학교에서 선택과목으로 3년과정에서 2단위를 이수하도록하고 있음.

보듯, 대학 입학정원에 비해 광범위하고 안정된 인원을 갖고 있는, 가장 변화무쌍한 시기이고 청년기의 시작인 중학교에서부터의 심리학 교육은, 성교육의 부수적 효과와 함께 바람직한 청년 문화 창조와 교육 풍토 조성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예견된다.

지식과 도덕과의 만남만이 도덕성을 일깨우는 주춧돌이 될 것이다.⁴⁸⁾ 지식의 처방인 심리학 교육이 그들의 자율의식을 부추길 때, 생리적인 공격성은 <친 사회적 행위>로의 출구를 찾을 것이다. 이를 돕는 일은 주관자의 교육 사회적 의무이며 사회의 구원일 것이다.

IV. 결 언

오늘의 위기는 지성의 고갈과 도덕성의 타락에서 기인한다: 상식과 양심의 형성에 지식이 발휘하는 힘에 대한 관심을 너무 소홀하게 다뤘던 결과로, 지성의 의미를 기능주의적 도구로 인식하여, 인간화 교육을 교육이 간과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자율의식을 옹기 형성하지 못해 시민의식의 결여를 가져왔으며, 이는 청소년의 기본적 변화욕

구에 대한 자율 통제를 그려쳐, 그들의 공격성을 <반 사회적 행위>로 배출하게 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인간의 감정이 억제·조정하기 어려운 생물체라 하더라도, 인지 능력의 개발에 의해 조절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공격성을 조정하는데 필요한 교육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데, 첫째, 청년기의 시작인 중학교에서부터 심리학 교육을 실시한다면, 바람직한 인성이 형성되어 주체성 있는 삶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둘째, 오늘의 학교 체육은 엘리트 체육에 더 주력하고 있다. 스포츠가 상품화·도구화로 변화되어 호전적 열광인 <반 사회적 공격성>을 양산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러한 공격성을 <친 사회적 행위>로 조정하기 위해선 학교체육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도덕성이란 학동이 사람을 경험하고 보존하려 할 때 발달한다. 따라서 주관자들은 사랑이 넘치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역할 담당자가 되어야 한다.

교육은 종합예술의 의미처럼 보인다. 신체·기능·인지·정의의 기능들이 교육환경과 제각기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발전할 때, 학동은 안정된 인성⁴⁹⁾을 갖출 것이다. 칸트의 명언처럼, 외경스러

47) '88 경제기획원 발표 전국 초·중·고·대학 입학 정원 통계

구 분	정 원	비 율
'76국민학교 입학생 정원	933,223명	100%
'82중학교 입학생 정원	906,982명	97.12%
'85고등학교 입학생 정원	758,737명	81.3%
'88대학(전문대 포함) 입학생 정원	933,223명	100%

○ 비율은 국민학교 입학 학생수에 대한 각 학교의 정원과의 비교임

○ 위는 표본집단으로서 전국에서 '76학년도에 국민학교를 입학한 학생들이 중·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에 들어간 학생수의 변화 표임.

48) 최정용, 「앞의 글」, 225쪽

49) 안정된 인성 *established personality*: 증가하는 긴장에 대처하는 다소 연속적인 장치가 만들어지는 인성을 뜻하며, 외국에서는 보통 20세 전후에 형성되거나 우리 나라는 대학입시 때문에 지체되는 경향이 있다.

운 도덕률이 마음속에 자라고 있음을 느낄 때, 행동은 미래지향적 가치를 창조하고 자율 의지를

지닌 민주 시민으로 거듭 태어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권이종. 1989. 『청소년 지도의 실제』, 서울:배영사 신서.
- 김성태. 1988. 『발달심리학』, 서울:법문사.
- 김여옥. 1983. 『심성계발프로그램 I』, 서울:배영사 신서.
- 박덕규. 1989. 『청소년의 성격 형성과 공격성』, 서울:배영사 신서.
- 주건성. 1988. 『인성입문 분석(알고 계십니까?)』, 서울:노해 출판사.
- 최정웅. 1984. 『교육사회학』, 서울:형설출판사.
- 한국사회체육진흥회, 1983. 『사회체육과 건강생활』, 서울:신신문화인쇄사
- 이규태. 1983. 『한국인의 의식구조』, 서울:신원출판사
- 서울대학교교육연구소. 1994. 『교육학용어사전』
- 강영심. 1988.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과 청소년 비행 및 공격성 적용』, 부산대대학원 석사논문.
- 송창윤, 1987. 『부모의 양육 태도와 공격성과의 관계』, 제주대학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William·C. 1985. Crains, 『Theories of Development』, 서봉정 역, 서울:중앙서적출판부.
- Calvin·S. 1988. Hall, 『Freud 심리학입문』, 최혜란 역, 서울:학일출판사.
- C·G. 1986. Jung외, 『융심리학 해설』, 설영환 역, 서울:선영사.
- Erick Fromm. 1986. 『man for himself』, 송낙현 역, 서울:문학출판사.
- Konrad Lorenz. 1986. 『On Agression』, 송준만 역, 서울:이화문고 42.
- 市丸成人. 1986. 『Montessori 교육학 입문』, 이정규 역, 서울:현대교육사.